



지난 8일 광주 경양초등학교 4학년2반 박민우 교사와 학생들이 광주일보를 가지고 NIE 수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경양초 “신문 보며 꿈 키워요”

기사 읽고 일기 쓰며 생각 발표 롤모델 찾아 진로탐구 시간도

“오늘은 신문을 활용해 ‘미덕’의 일기를 써봅시다.”

지난 8일 오전 광주 경양초등학교(교장 정경숙) 4학년2반 교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교육)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칠판엔 ‘공부할 문제-신문을 활용하여 ‘미덕(美德)’의 일기를 써봅시다. 공부할 순서-①신문 읽기 ②신문 스크랩 ③미덕을 통해 일기 쓰기. 단원-꿈을 찾는 일기 쓰기’라고 수업 계획이 적혀 있다.

25명의 아이들은 광주일보 5월7일 신문을 뒤적이며 ‘미덕’을 표현할 수 있는 기사를 찾는다. 답인인 박민우 교사는 협동·신

뢰·겸손·기뻐함 등 52가지 미덕이 적혀 있는 카드를 나눠주며 아이들의 수업을 지도한다.

하영이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어머니 날 캐네이션은 누가 알아줄까...’ 기사에서 용기·사랑·배려·끈기의 미덕을 찾아냈다. 예원이는 ‘god 싱글앨범 수익금 전액 세월호 참사 기부’라는 기사에서 배려·존중·사랑을 고집어냈다.

아이들은 골리는 기사를 찾아 스크랩한 뒤 ‘신문일기’에 요약해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한다. 그리고 4~5명이 돌아가며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고,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놓는다.

박민우 교사는 “신문을 읽고 글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NIE 수업의 목표다”며 “특히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인 광주·전남의 소식을 알 수 있어 초등학교 수업에 더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좋은 기사를 보며 자신의 롤모델을 찾고, 진로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가 꿈인 예원이는 “한의사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며 어떻게 하면 한의사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됐고, 직접 기사를 쓰는 재미도 있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인 다민과 수민이는 “골라보는 재미가 있고, 눈송글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판사가 꿈인 세민이는 “정보를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어 재밌다”고 말했다.

경양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광주일보를 매일 50부씩 받는다. 이 신문으로 3·4학년 1개반씩 요일별로 돌아가며 NIE 수업을 한다. 수업은 일기쓰기·에세이·교과교육·인성교육과 연계해 진행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송의중 과학동아리, 동구 행복재활원서 재능나눔

조선대와 연계...체험활동 등

광주 송의중학교(교장 김해숙) 과학동아리 ‘빅뱅’은 최근 광주시 동구 장애가족 재활시설인 ‘행복재활원’에서 다채로운 과학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

올해로 20회째인 이 행사는 송의중 과학동아리 ‘빅뱅’과 조선대 생활과학교실, 엘비스매직, 레오파트 등 봉사동아리가 함께 했다.

과학 체험행사는 ▲과학 체험부스 ▲장애 가족과 함께하는 로켓 발사 ▲과학 마술 ▲과학적 지식을 활용한 공기 대포 ▲프리즈마(정전기볼) 시연 등이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박용성(3년) 양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를 가진 오빠·언니와 함께 어울려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과학



광주 송의중 과학동아리 빅뱅 회원들이 행복재활원에서 과학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송의중 제공>

원리와 기구들을 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어 기뻐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의중은 교육부 ‘창의·인성교육 모델학

교’로 지정, 과학동아리 ‘빅뱅’을 중심으로 광주 새날학교·행복재활원 등에서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진학교사들과 함께 하는 2015 대입 성공 프로젝트

① 수능 출제 경향과 대책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와 수학은 선택형으로, 영어는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잦은 변화에 따라 수험생들은 얼마나 일찍 정확한 정보를 얻어 다각적으로 대비하는지가 성패를 좌우한다. 광주·전남지역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진학교사와 대학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한대대학시전형연구회’의 도움으로 입시 분석과 전략을 연재한다.

국·영·수 고난도 문제 해결이 관건

탐구영역 선택...최대 승부처

70% EBS 연계 원칙 유지

영어는 평이하게 출제 예상

■ 국어영역 출제 기본 체제

구분	화법	작문	문법	독서(비문학)					문학					극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독서 원리	현대 시	고전 시	수필	현대 소설		고전 소설
A형 배점	5	5	5	2	4	3	3	3	-	3	3	2	4	3	-
합계	15	15	15	4	9	7	7	7	-	6	7	4	9	7	-
B형 배점	5	5	6	3	4	2	-	3	2	3	3	2	3	4	-
합계	16	16	13	7	8	5	-	7	4	7	7	4	7	9	-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개 영역만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 탐구영역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탐구영역은 논술고사와 연계돼 과목 선택의 중요성(예 : 건국대 공대 일부학과 과학논술 물리 지정)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올해 전망과 대비책을 알아본다.

▶작년 수능 출제 경향 분석

지난해 수능은 고난도 문항들이 국·영·수에 고르게 2~3문항씩 배치됐다. 첫 A/B 선택형 수능 시행으로 상위권은 고난도 문제 1개가 등급을 바꾸는 등 대입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됐다. 고난도 문제를 해결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상위권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의미다.

그 결과, 상위 1% 학생들의 만점을 목표로 한 예년의 쉬운 수능 출제원칙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깊이가 없는 겉핥기식 공부를 했거나 EBS만 공부한 상위권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다만, 70% EBS 연계 출제 원칙은 지켜져 중상위권 학생들은 어렵지 않은 수능이 됐다.

결론적으로 상위권 학생은 어려운 수능이었고, 중위권은 무난한 수능이었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탐구영역은 3과목에서 2과목 응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각 등급별 인원이 33% 줄어들어 탐구영역 점수의 변별력이 매우 커졌고(특히 영역별 변별 비율이 큰 자연계에서), 대학 입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수능 출제 경향 예측

올해 수능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난도 문항이 국·영·수에 고르게 2~3개 문항씩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권 수험생은 고난도 문제 1개의 해결 여부에 따라 등급이 바뀌고, 나아가 대입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어영역은 A/B형 통합 출제

와 쉬운 출제방향이 발표에 따라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평이하게 출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70%의 EBS 연계 출제 원칙은 지켜져 중상위권 학생들은 어렵지 않은 수능이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EBS로 기본문제를 익히고, 최상위권 학생은 EBS 뿐만 아니라 각 단원별로 깊이 있는 문제풀이가 필요하다. 탐구영역은 지난해와 같이 2과목 응시로 난이도에 관계없이 매우 변별력이 커져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과목별 대비는

▲국어영역=1점 배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3점짜리 고난도 문항 1개를 놓치면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갈 수 있다. 올해 수능을 대비할 때는 우선 출제의 기본체제(표 참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강점인 영역과 단점인 영역을 구별해 하나씩 점검하는 형태의 수능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독서(비문학)분야에서 A형은 과학·기술 분야, B형은 인문·사회 분야의 지문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자주 출제됨을 유념해야 한다.

▲수리영역=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의 구현이다. 따라서 수학공식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수학의 기본개념, 원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춰 학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으로는 쉽게 풀리지만 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대수적 접근보다는 직관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출제된 고난도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나 원리를 통합한 문항,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인 문항들로, 입체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해 어렵게 느껴지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를 풀 때 단순한 답을 내는데 급급하지 말고 풀이과정을 정확히 서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매년 출제된 30번 문제를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영어영역=지난해 수능은 A/B 선택형 수능 시험이었지만 올해는 단일형이다. 또 듣기문항이 22개 문항에서 17개 문항으로 줄어든다고, 독해는 23개에서 28개 문항으로 늘었다.

지난해 수능 듣기에서 처음 출제된 ‘세트형 문항’(1단화문 2문항)은 올해도 계속 출제된다. 전문가들은 예년과 같이 영어 영역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예상대로 상위권·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철민 시민기자·송덕고 교사·한림대학 입시전형연구회장>

■ 한돌입시전형연구회는

광주·전남 진학지도 교사와 대학입학사정관, 전국 대학입시 전문가, 논술 교사들로 구성된 매년 입시결과를 분석하고, 달라진 입시제도에 빠르게 적응해 학생들 입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결성된 전국 단위 입시전문가들의 연구단체. 한철민 송덕고 교사가 지역별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매월 개최하는 세미나의 결과물을 광주일보에 소개해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빠르고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가

M.H.타사
~~130~~만원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신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SINCE 1988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텀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